

#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Onset of Adolescents' Status Delinquency

Hongju Yun  
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을 비연속 생존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최초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중1패널 5개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 학생 수는 2,277명(남학생 1,126명, 여학생 1,151명)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지위비행 발생에 대한 위험확률은 중2때 16.6%로 가장 높았으며, 중3때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우울, 공격성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 정서 요인이 최초 지위비행 시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인 학대는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방임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청소년 주변의 비행친구는 최초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섯째, 학교요인 중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은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친 반면 교사관계 적응은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에 대한 발생시점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지위비행 예방을 위해 초기 개입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onset of adolescent delinquency through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Our analysis used data obtained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and included 2,277 middle school student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azard probability for the occurrence of delinquency was the highest at 16.6% in the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slightly decreased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but continued to increase as the overall grade increased. Second, adolescen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onset of delinquency. Third, negative parenting method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delinquency, but neglect was not significant. Fourth, having delinquent friends wa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status of delinquency. Fifth, among the school factors, adjustment of learning activities, adjustment of school rules, and adjustment of friendship relations influenced the status of delinquency, while the adjustment of teacher relations was not significant. As early intervention is important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education and support for establishing healthy relationships are needed.

**Keywords** : Adolescent,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Status Delinquency,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Types of Adolescent Delinquency

---

\*Corresponding Author : Hongju Yun(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email: [hjyun@cnu.ac.kr](mailto:hjyun@cnu.ac.kr)

Received October 30, 2020

Revised December 2, 2020

Accepted February 5,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인이 되기 위해 청소년이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지만 동시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으며 그 시기를 보낸다[1]. 청소년기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 혼돈을 겪기도 하고, 복잡다기한 감정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2].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부 청소년은 일탈과 비행, 심지어 범죄를 행하기도 한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청소년 범죄자의 비중은 2009년 4.5%에서 2018년 3.8%로 10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줄어들던 범죄의 비중은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3], 최근 10년 간 폭행은 4.1배, 사기는 1.8배 증가하는 등 일부 범죄는 급증하였다[4].

사회에는 사회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인 사회규범이 존재하고, 사회규범의 위반을 일탈행동이라 한다.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을 말한다[5]. '어른에게 인사하기'와 같은 사회규범을 어길 때는 꾸중이나 나무람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강도, 폭행과 같이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내려지는 사회규범 위반도 있다. 이처럼 사회규범을 벗어난 일탈행동은 범죄보다 넓은 개념으로 법규범 위반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이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총칭한다[6]. 청소년 비행이란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잘못된 행동으로 좁은 의미로는 범죄 행위에 국한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간주되는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놀리기 등을 지칭한다[7-9].

본 연구는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는 일탈행동으로 간주되는 지위비행을 대상으로 한다. 사람들은 청소년 비행 문제를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음주, 흡연, 무단결석 등 일부 비행행위의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이러한 가벼운 지위비행에서 시작되고, 또 지위비행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성인이 된 후 범죄와 같은 중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위비행 문제를 결코 가볍지 않다[1, 10, 57].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분노,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비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가장 일반적이다[13, 19, 20, 25, 26, 31, 58-59].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 및 가족 간 관계요인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는데, 부모

의 긍정적 양육태도 뿐 아니라 방임, 학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다[16, 28, 30, 41, 61-63]. 가정요인 이외에도 학교요인이나 사회자본, 비행친구의 영향과 같이 사회적 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며[6-7, 10 27 53 56], 최근에는 사이버비행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12, 45, 52]. 이외에도 학년, 성별 등 개인의 속성에 주목하여 집단 간 비행의 차이에 초점을 두거나[35, 54, 64, 66, 68],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행의 패턴을 분석한 종단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29, 55, 67].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으로 영향요인을 정리하였다[1, 6, 9, 11-12, 14, 16, 19, 20, 28].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자기통제력, 낙관주의 등 개인의 심리 및 성격 특성이 있다[12-15]. 가정요인에는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과 같은 가정배경 뿐 아니라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이 포함된다[16-17]. 학교요인에는 대체로 친구관계, 학교적응, 교육환경 등이 포함된다[14, 18-21]. 학교적응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학교수업에 참여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친구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한다[22].

그동안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횡단연구로서 비행 영향요인이 비행행위보다 먼저 발생했다는 시간적 선행을 담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비행이 일어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비행이 일어나는 시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비행 발생 여부와 더불어 비행이 발생한다면 언제 발생하는지, 비행이 발생한 시점에 비행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을 비연속 생존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최초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특정한 시기에 청소년이 처음으로 지위 비행을 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2〉 개인, 가정, 학교요인이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중1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 기간은 중2~고3까지 5개년(2012~2016)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한 자료이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학생 수는 총 2,277명이다.

### 2.2 기술 통계 및 측정 도구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는 Table 1과 같으며, 종속변수인 지위비행의 경우 지위비행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13.5%이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tatus Delinquency	8,305	0	1	0.135	0.342
Gender(male=1)	8,305	0	1	0.463	0.499
Region	8,095	1	3	1.208	0.532
Satisfaction with Grades	8,305	1	4	2.300	0.776
Satisfaction with Life	8,305	0	4	2.836	0.621
Household Income	8,218	0	40,000	4,444	2,709
Parent Education Level	8,305	0	5	2.857	0.984
Neglect	8,305	0	4	1.860	0.534
Abuse	8,305	0	4	1.711	0.665
Number of Delinquent Peers	8,305	0	330	4.211	13.131
Adjustment of Learning	8,305	1	4	2.784	0.505
Adjustment of Rules	8,305	1	4	2.937	0.510
Adjustment of Friend Relations	8,305	2	4	3.094	0.388
Adjustment of Teacher Relations	8,305	1	4	2.885	0.60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 검사는 청소년발달 종합지표 조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나는 사는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의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6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차  $\alpha=.870$ , 3차  $\alpha=.818$ , 4차  $\alpha=.775$ , 5차  $\alpha=.775$ , 6차  $\alpha=.824$ 이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허묘연[69], 김세원[70]의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방임과 학대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의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 관련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차  $\alpha=.772$ , 3차  $\alpha=.752$ , 4차  $\alpha=.722$ , 5차  $\alpha=.696$ , 6차  $\alpha=.693$ 이며, 학대

관련 문항의 경우 2차  $\alpha=.848$ , 3차  $\alpha=.858$ , 4차  $\alpha=.856$ , 5차  $\alpha=.817$ , 6차  $\alpha=.875$ 이었다.

학교생활적응 검사 도구는 민병수[7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4점 리커트 척도의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영역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차  $\alpha=.702$ , 3차  $\alpha=.724$ , 4차  $\alpha=.758$ , 5차  $\alpha=.769$ , 6차  $\alpha=.785$ 이며, 학교규칙은 2차  $\alpha=.788$ , 3차  $\alpha=.782$ , 4차  $\alpha=.767$ , 5차  $\alpha=.747$ , 6차  $\alpha=.775$ 이었다. 교우관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차  $\alpha=.534$ , 3차  $\alpha=.534$ , 4차  $\alpha=.640$ , 5차  $\alpha=.620$ , 6차  $\alpha=.655$ 이며, 교사관계의 경우 2차  $\alpha=.837$ , 3차  $\alpha=.841$ , 4차  $\alpha=.803$ , 5차  $\alpha=.798$ , 6차  $\alpha=.843$ 이었다.

### 2.3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비연속시간 생존분석(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최초의 지위비행 발생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존분석은 사건의 발생 여부와 사건 발생 시점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한 통계방법이다[23]. 사건의 발생은 양적인 변화가 아닌 결혼, 취직, 출생, 실직 등과 같이 사건이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관심인 청소년의 지위비행 발생은 양적인 변화가 아닌 질적인 변화이며, 학년을 기준으로 측정된 연속시간이 아닌 비연속시간 자료이다. Singer 등은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의 방법으로 로짓(logit) 모형분석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24].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은 특정한 기간(time period)  $j$ 에서 개인  $i$ 에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위험(hazard)으로 정의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위험 확률( $h(t_{ij})$ )은 특정 기간  $j$  이전에 개인  $i$ 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이 기간  $j$ 에 사건을 경험할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h(t_{ij}) = \Pr[T_i = j | T_i \geq j] \quad (1)$$

이를 선형함수 형태인 로짓모형으로 나타내면 기저모형(Baseline hazard model)은 식(2), 독립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Conditional hazard model)은 식(3)과 같이 표현된다[24].

$$\text{Logit } h(t_{ij}) = [\alpha_1 D_{1ij} + \alpha_2 D_{2ij} + \dots + \alpha_j D_{jij}] \quad (2)$$

$$\text{Logit } h(t_{ij}) = [\alpha_1 D_{1ij} + \alpha_2 D_{2ij} + \dots + \alpha_j D_{jij}] + [\beta_1 X_{1ij} + \beta_2 X_{2ij} + \dots + \beta_p X_{pij}] \quad (3)$$

여기서,  $D$ 는 시간더미 벡터,  $X$ 는 조건변수 벡터

최초 지위비행 경험을 사건(event)라 할 때, 지위비행이 발생할 위험확률(hazard,  $H(t_{ij})$ )은 다음과 같은 식(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_{ij}) = \frac{\exp(\sum_{j=1}^{10} \alpha_j D_j)}{1 + \exp(\sum_{j=1}^{10} \alpha_j D_j)} \quad (4)$$

기저모형의 경우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을 중2부터 고3까지 절편을 투입하지 않고 시간더미 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이며, 조건모형에서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 3. 연구결과

#### 3.1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은 학생들이 언제 처음으로 지위비행을 하는 지이다. Table 2는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에 대한 생존분석 결과이다. 지위비행에 대한 위험확률을 보면 중2 때 16.6%로 가장 높고, 중3 때 9.6%로 크게 낮아진다. 이후 고등학생이 되면서 위험확률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고3 때는 16.4%까지 증가한다. 위험확률은 특정 기간 이전에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개인이 특정 기간에 사건을 경험할 조건부 확률이다. 따라서 중2 때 위험확률이 16.6%라는 의미는 중2 때까지 지위비행을 하지 않은 학생이 중2가 되면서 지위비행을 할 확률이 16.6%라는 의미이다.

Table 2. Results of the Onset of Status Delinquency

Grade	Frequency			Hazard Function	Survival Function	Odds	logit $h(t_{ij})$	
	Number	Event	Censored					
All	8,305							
Middle	2nd	8,305	379	1,898	0.166	0.954	0.200	-1.611
	3rd	6,028	182	1,707	0.096	0.926	0.107	-2.238
High	1st	4,139	191	1,387	0.121	0.883	0.138	-1.983
	2nd	2,561	178	1,195	0.130	0.822	0.149	-1.904
	3rd	1,188	195	993	0.164	0.687	0.196	-1.628

Fig. 1은 성별에 따른 최초 지위비행의 위험확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위험확률이 모든 학년에서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승산비의 비례성(proportional odds) 가정도 충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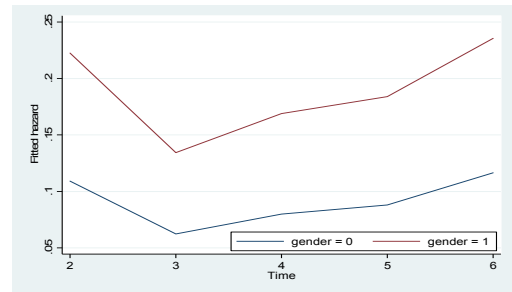


Fig. 1. Gender Hazard Probability of Delinquency

Fig. 2는 지위비행에 대한 생존곡선을 성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생존곡선은 해당 시기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비율, 즉 지위비행을 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을 나타낸다.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의 생존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생존곡선도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남학생의 생존곡선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하향하고 있는데, 이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지위비행을 하는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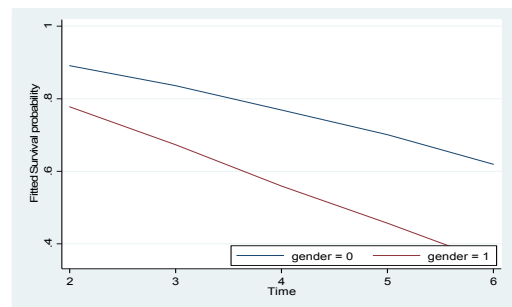


Fig. 2. Gender Survival Curve of Delinquency

#### 3.2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Table 3은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등 독립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이다.

먼저, 개인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은 유의한 반면 거주지역, 학업성적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지위비행 가능성이 약 2.2배 높았으며, 공격성과 우울 역시 지위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공격성과 우울

Table 3. Conditional Model with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Coefficient	S.E	Odds Ratio	
Persons on all	Gender(male=1)	0.789***	0.077	2.201	
	Region	Eup	-0.024	0.124	0.976
		Myeon	-0.002	0.145	0.998
	Satisfaction with Grades	-0.035	0.047	0.966	
	Satisfaction with Life	0.003	0.064	1.003	
	Aggressiveness	0.403***	0.078	1.496	
	Social Atrophy	-0.281***	0.062	0.755	
Depression	0.310***	0.088	1.363		
Family	Household Income	-0.047	0.042	0.954	
	Parent Education Level	-0.152***	0.038	0.859	
	Parenting Method	Neglect	-0.069	0.072	0.933
Abuse		0.111*	0.055	1.117	
School	Number of Delinquent Peers	0.032***	0.003	1.033	
	School Adjustment	Learning	-0.634***	0.083	0.530
		Rules	-0.437***	0.081	0.646
		Friend Relations	0.667***	0.110	1.948
		Teacher Relations	-0.047	0.067	0.954
	d_2	-1.472**	0.541	0.229	
	d_3	-2.157***	0.553	0.116	
d_4	-1.670**	0.549	0.188		
d_5	-1.450**	0.548	0.235		
d_6	-1.192*	0.554	0.304		

의 점수가 1점 더 높은 경우 지위비행의 가능성은 각각 1.5배, 1.4배 더 높았다. 반면 사회적 위축은 지위비행에 부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위축이란 주변 사람과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것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와 고립, 거부와 무시 등을 경험할 때 주로 나타난다[25].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위축이 심할수록 지위비행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26-27], 사회적 위축은 비행 유발 요인이기보다는 오히려 비행피해를 높이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28]. 공격성과 우울이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6-27, 29-31].

가정요인에서는 부모학력의 평균과 부모의 양육방식 중 학대가 유의하였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가구소득보다는 문화자본의 성격이 강한 부모의 학력이 지위비행을 낮추는데 유의하였으며, 부모의 양육방식에서는 방임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학대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요인에서는 지위비행경험 친구수와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이 유의하였다. 반면 교사관계 적응은 비행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즉 주변에 지위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많을수록 위험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학습활동,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도는 낮을수록 위험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교우관계 적응이 높을수록 지위비행에 대한 위험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최초 지위비행 발생시점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건의 발생시점과 사건발생의 예측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지위비행 발생에 대한 위험확률은 중3때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한다는 점은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다[32-34]. 그러나 이들 연구는 최초 비행경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행발생 여부 또는 빈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청소년 비행에서 문제행동의 최초 발생시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최초 문제행동의 발생시점이 빠를수록 이후 더 심각한 문제로 전개되기 때문이다[35-36]. 또한 청소년 비행의 발생시기, 원인, 형태 등은 다양하지만 비행발생에 대한 초기 개입이 장차 비행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효과가 크다[37]. 분석결과 최초 지위비행은 중2때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중3때 다소 감소하지만 고1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행문제에서 초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입학 후 지위비행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울, 공격성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 정서 요인이 최초 지위비행 시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우울은 비행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며[38],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39].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안정성을 띠는 지속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이 필요하다[31]. 우울과 더불어 공격성 역시 약물사용이나 범죄와 같은 비행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40-42]. 청소년의 비행이 우울이나 공격성과 같은 심리, 정서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비

행문제에 대한 개입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평가와 개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를 통한 행동적, 정서적 개입이 중요한데, 미국 청소년 발달에 관한 종단(4-H Stud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연구에서도 학교의 행동·정서적 개입이 청소년 비행에 매우 유의하게 낮추었으며[43], 이러한 점에서 학교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여가 요구된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인 학대는 청소년의 비행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정의 학대 방지 및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비행 확률을 직접 높일 뿐 아니라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공격성이 다시 비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12, 44-45]. 우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에 관한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부모와의 애착은 비행의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46-48]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을 위해 교사가 세심한 관찰을 통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학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폭넓게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 주변의 비행친구는 최초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청소년 비행에서 친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비행이론에서 인정하는 바이다[49]. 청소년의 행동에 친구의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반사회적 행동 또는 비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50-51]. 청소년은 또래 무리에 속하고자 하거나 또래 사이에 유행을 따르려는 성향, 즉 동조성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집단의 공유된 규범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동조성은 규범이 개인의 신념과 일치할 때 뿐 아니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집단의 압력에 의해 집단행동에 따르도록 영향을 미치며, 반사회적인 행위 같은 부정적 행위에도 영향을 준다[52]. 특히 지위비행의 경우 비행친구가 비행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따라서 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래 관계를 비행과 같은 부정적 행위로 형성하기보다는 긍정적 행위와 접촉을 통해 또래 관계와 동조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전한 또래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 여가 등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요인 중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 등 학교적응 요인은 지위비행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학교적응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도 학교적응이 낮을수록 비행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1, 19-20, 54-55].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의미를 갖지 못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을 음주, 흡연, 가출과 같은 비행으로 보상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56]. 그러나 학교 적응과 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한 많은 연구에서 학교적응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 네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활동, 학교규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우관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비행친구도 교우관계로 생각하거나 교우관계가 좋을 때 함께 비행을 저지르기 때문에[20] 교우관계 적응이 지위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우관계가 비행에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학교에서 학생간의 올바른 교우관계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교사들의 또래관계 지원과 상담을 통해 건전한 교우관계 정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 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지위비행 최초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잠재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변화패턴을 분석하거나, 잠재계층 또는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활용하여 지위비행을 보다 세밀하게 유형화하여 영향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J. Koo, E. Shin, J. Lee,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f juvenile delinquency based on types of status", *Forum for Youth*, vol.62, pp.29-49, 2020. DOI : <https://doi.org/10.17854/ffyc.2020.04.62.29>
- [2] S. H. Lee, A Study on the Project of Reinforcing Protective Factors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07.
-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 Youth White Paper*, 2019.
- [4]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Judicial Yearbook*, 2020.
- [5] J. Kim, S. Noh, S. Lee, D. Kwak, D. Lee, C. Park, *Juvenile Delinquency Theory*. ChongMok, 2014.
- [6] H. Koh,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17.
- [7] S. Noh,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 delinquent peer and delinquent behavior,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17, no.4, pp.297-332, 2006.
- [8] W. Lee, W. You, "The analytic study of adolescents' status offenses", *Korean Security Journal*, vol.39, pp.217-239, 2014.
- [9] K. Kim, H. Lee, "The impact factor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17, no.2, pp.1-22, 2007.  
DOI : <https://doi.org/10.32465/ksocio.2007.17.2.001>
- [10] J. H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Social Relationship and Delinquency Transition of Vulnerable Adolescents Experiencing Status Delinqu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17.
- [11] S. Kim, "A study on the multi-level survival analysis of the first juvenile delinquency factors", *Proceedings of 5t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Forum*, pp.338-359, 2015.
- [12] J. Choi, J.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s'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5, no.1, pp.49-67, 2016.  
DOI : <https://doi.org/10.17643/KICE.2016.25.1.03>
- [13] E. Koh, E. Kim, "The effects of depression, inattention, internet use and teacher-student/peer relationships on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3, pp.1-26, 2015.
- [14] U. No, S. Jung, S. Hong,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delinquenc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determina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5, no.4, pp.211-240, 2014.  
DOI : <https://doi.org/10.14816/sky.2014.25.4.211>
- [15] W. Min,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recidivism in juvenil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5, no.2, pp.265-290, 2014.  
DOI : <https://doi.org/10.14816/sky.2014.25.2.265>
- [16] M. Lee, M. Choi, J. Cho, "Child abuse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al Studies*, vol.8, no.2, pp.9-42, 2007.
- [17] S. Chung, J. Lee, "Testing the determinants on the onset of adolescents' smok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7, no.4, pp.263-284, 2016.
- [18] J. Kim, "Explori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delinquency during late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11, pp.259-287, 2018.  
DOI : <https://doi.org/10.21509/KJYS.2018.11.25.11.259>
- [19] K. Lee, H. Park,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volunteer time in the effect of school maladjustment on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depression", *Youth Facilities Environment*, vol.16, no.2, pp.79-91, 2018.
- [20] S. Jun,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and juvenile delinquency across three age groups", *Forum for Youth*, vol.57, pp.73-98, 2019.  
DOI : <https://doi.org/10.17854/ffyc.2019.01.57.73>
- [21] S. H. Choi, H. S. Kim, "Higher order interaction effects on childhood delinqu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21, pp.233-258, 2006.
- [22] Y. J. Kw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elinqu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39, pp.177-204, 2017.
- [23] S. Hong, D. Kim, "Determinants of the onset of adolescent runaway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8, no.2, pp.217-233, 2007.
- [24] Singer, J. D., Willett, J. B., & Willett, J. B.,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25] B. J. Lee, W. Min, J. Kim, "A study fo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8, pp.317-346, 2014.
- [26] Y. Yang, S. Kim, T. Lee, "The effect of strain on juvenile delinquency", *Studies on Korean Youth*, vol.30, no.2, pp.5-31, 2019.  
DOI : <https://doi.org/10.14816/sky.2019.30.2.5>
- [27] J. Cheong, J. Lee, I. Yun, "Reciprocal effect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delinquent peers", *Korean Police Bulletin*, vol.22, no.2, pp.173-200, 2020.
- [28] Y. Cho, H. Ju, M. Hyu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6, no.2, pp.59-81, 2015.
- [29] S. Lee, M. Hoe, "The analysis of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vol.17, no.2, pp.241-264, 2015.
- [30] J. Cho, Y. Cho, "The effect of self-control and parent abuse on juvenile delinquency",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vol.13, no.2, pp.159-180, 2017.  
DOI : <https://doi.org/10.25277/KCPR.2017.13.2.157>
- [31] J. Choi, "The reciprocal causation between delinquency and depression during early adolescence", *Studies on Korean Youth*, vol.59, pp.143-169, 2010.
- [32] K. Ki, "An empirical study on age effect in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23, no.1, pp.127-152, 2011.  
DOI : <https://doi.org/10.36999/kic.2011.23.1.127>
- [33] H. Kim, K. Kim, H. Kwon, S. Yeoum, S. Kim,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middle school student's status offenses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2, no.2, pp.77-99, 2005.
- [34] A. Yoo, J. Lee, J. Seo,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elinquent behaviors depending on family structures among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3, no.10, pp.91-109, 2005.



- [35] Loeber, R., Atouthamer-Loeber, M., Van Kammen, W., & Farrington, D. P.,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of self-reported antisocial behavior for young children: Prevalence and reliability", In M. Klein(Ed.), *Cross-National Research in Self-Reported Crime and Delinquency*.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pp.203-226, 1989.
- [36] S. Hong, J. Kim, "Discrete-time event history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al influences with gender on the onset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0, no.1, pp.137-154, 2006.
- [37] Vassallo, S., Smart, D., Sanson, A., Dussuyer, I., McKendry, B., Toumbourou, J., Prior, M., Oberklaid, F., *Patterns and Precursors of Adolescent Aantisocial Behaviour*. Melbourne: Crime Prevention Victoria, 2002.
- [38] K. Kwak, G. Yoon, E. Mun, "Research trend and task for studies of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7, no.1, pp.12-27, 1993.
- [39] C. Kim, "The effect of depression, stress coping, and hardiness on delinquency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2, no.3, pp.587-598, 2007.  
DOI : <https://doi.org/10.17315/kihp.2007.12.3.007>
- [40] H. Kim, H. Lee, "Predicting variables affecting the behaviors of bullies and victims of school bullying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5, no.1, pp.183-210, 2000.
- [41] H. Park, Y. Kim, "Family relations and youth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32, pp.113-135, 1997.
- [42] H. Jin, B. Park, S. Bae, "The impact of informal labeli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3, no.2, pp.121-148, 2011.
- [43] Li, Y., Zhang, W., Liu, J., Arbeit, M. R., Schwartz, S. J., Bowers, E. P., & Lerner, R. M., "The role of school engagement in preventing adolescent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Adolescence*, vol.34, no.6, pp.1181-1192, 2011.  
DOI :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1.07.003>
- [44] H. Kim, M. Kim, "The effect of parental abuse on adolescent agg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5, pp.97-122, 2016.
- [45] K. Jeong, S. Lee, "The effect on cyber delinquency from children abuse from par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vol.17, no.4, pp.171-190, 2015.  
DOI : <https://doi.org/10.19034/KAYW.2015.17.4.08>
- [46] Mikulincer, M., Gillath, O., Halevy, V., Avihou, N., Avidan, S. Eshkoli, N., "Attachment theory and reactions to others'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1, no.6, pp.1205-1224, 2001.  
DOI : <https://doi.org/10.1037/0022-3514.81.6.1205>
- [47] Thompson, K. L. Gullone, 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adolescents". *Anthrozoös*, vol.21, no.2, pp.123-137, 2008.  
DOI : <https://doi.org/10.2752/175303708X305774>
- [48] Bao, Z., Zhang, W., Lai, X., Sun, W. Wang, Y., "Parental attachment and chinese adolescents'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ce*, vol.44, pp.37-47, 2015.  
DOI :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5.06.002>
- [49] G. Yun, M. Yang, "A study on influencing to prediction risk factors of the delinquency experience on juvenile of multicultural", *The Journal of Korean Police*, vol.14, no.2, pp.313-338, 2015.
- [50] Berndt, T. J.,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5, pp.608-616, 1979.  
DOI : <https://doi.org/10.1037/0012-1649.15.6.608>
- [51] Cheung, Y W., Ng, A. M. C., "Social factors in adolescent deviant behavior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vol.12, pp.29-45, 1988.  
DOI : <https://doi.org/10.1080/01924036.1988.9688876>
- [52] J. Lee,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peer conformity on Youth people's cyber delinquency", *Global Social Welfare Review*, vol.5, no.1, pp.79-105, 2015.
- [53] S. Hwang, "Do delinquent peers precede delinquency or delinquency does than the preceding in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Studies*, vol.23, no.2, pp.53-70, 2016.
- [54] H. Gao, J. Hwang, "The aggressive delinquency change and influencing factors as adolescent grade increas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9, no.4, pp.945-968, 2018.
- [55] Y. Cho,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buse and neglect by parents, school adjustment, and adolescent delinquency", *Forum for Youth*, vol.58, pp.145-172, 2019.  
DOI : <https://doi.org/10.17854/ffyc.2019.04.58.145>
- [56] S. Lee,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factors of adolescents' maladjusted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Behavior Science*, vol.16, pp.161-185, 2011.
- [57] J. Han, "A study of influential factors on delinquency transition process of adolescents in status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7, pp.59-85, 2016.  
DOI : <https://doi.org/10.21509/KJYS.2016.07.23.7.59>
- [58] J. Kim, M. Ha,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experience on cyber delinquency of adolescenc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68, no.1, pp.97-133, 2020.



- [59] M. Kim, S. Jun, S. Cho, H. Jone,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on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ts with delinquent behavior",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31, no.1, pp.1-9, 2018.  
DOI : <https://doi.org/10.15434/KSSH.2018.31.1.1>
- [60] M. Cha, "Influence of strain experienced in school on the juvenile delinquency via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4, no.1, pp.83-110, 2014.
- [61] H. Bae, M. Lee, "Parental abuse and neglect and adolescent misconduct: The mediating role of aggress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34, no.1, 2018.  
DOI : <https://doi.org/10.18859/ssrr.2018.02.34.1.281>
- [62] H. Kim, M. Kim, "The effect of parental abuse on adolescent agg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5, pp.97-122, 2016.  
DOI : <https://doi.org/10.21509/KJYS.2016.05.23.5.97>
- [63] J. Han, K. Kim,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on the delinquency experience of multicultural adolesc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vol.64, pp.145-164, 2020.
- [64] I. Chung, "Sex role stereotypes and sex differences in juvenile delinquency", *Studies on Korean Youth*, vol.16, no.1, pp.35-76, 2005.
- [65] J. Lee, H. Shin, "The impact of school/classroom gender composition on delinquency among classmat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9, no.1, pp.93-115, 2018.  
DOI : <https://doi.org/10.14816/sky.2018.29.1.93>
- [66] H. Go, J. H, "The aggressive delinquency change and influencing factors as adolescent grade increas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9, no.4, pp.945-968, 2018.
- [67] H. Lee, K. Kim, S. Choi, "The longitudinal analysi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behavior of Korean youth",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4, no.2, pp.125-147, 2016.  
DOI : <https://doi.org/10.35151/kyci.2016.24.2.007>
- [68] S. Kim, Survey on Youth Development Indicators in Korea: Verification of measurement indicators in the result sector,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2006.
- [69] M. Hur,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0.
- [70] S. Ki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 [71] B. Min, The Influence of School Life Adaptation and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1991.

윤 홍 주(Hongju Yun)

[정회원]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004년 3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재정, 다문화교육, 아동·청소년문제